목포시 주민참여 예산 대폭 늘었다

올해 57건 42억6500만원 반영
민선 5기말에 비해 두배 증가
도로건설·공원관리 분야 집중

민선 6기 목포시 주민참여 예산이 민선 5기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가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민참여 예산은 총 57건에 42억65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0.74% 수준으로, 민선 5기 말인 2014년(35건, 24억9300만원)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반영 현황을 보면 2013년 10억3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 24억9300만원, 2015년 31억3800만원, 2016년 35억7300만원, 2017년 37억7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5개 분야 가운데 '도로건설'과 '공원관리' 분야에 참여예산이 집중 반영됐다.

특히 도로건설 분야는 2013년 1건, 2014년 10건, 2015년 11건에 그쳤으나 2016년 23건, 2017년 22건, 2018년 26건으로 민선 6기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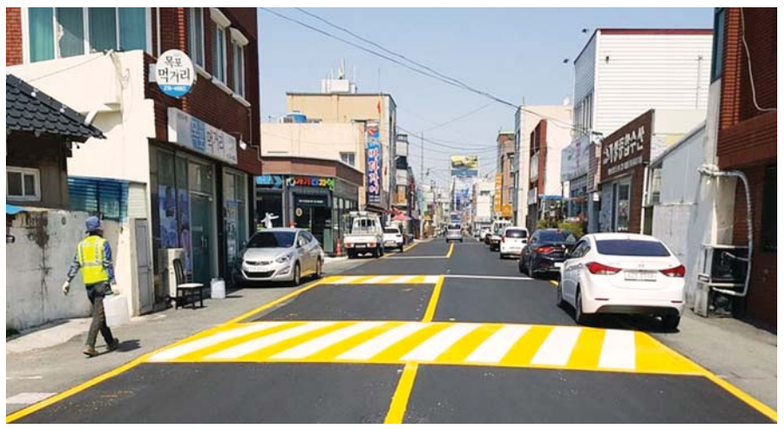
■ 주민참여예산 연도별 접수 및 반영 현황 (건수,백만원)

연도별	접수건	반영건(반영률)	반영액
2018년	67	57(85%)	4,265
2017년	65	43(66%)	3,772
2016년	65	55(85%)	3,573
2015년	61	40(67%)	3,138
2014년	59	35(59%)	2,493
2013년	38	20(52%)	1,030

민선 6기 들어서 목포시가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온 결과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도로건설 분야는 사업의 우선순위 보다는 목포시의원 등 이해관계 집단의 영향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앞서 목포시는 2019년 본예산 편성 전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최근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7000만원을 들여 포장된 연동 이면도로 모습. 〈목포시 제공〉

공모내용은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1건당 총 1억원 이내 사업이다.

제안된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시민 88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목포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의미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완성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목포 상하수도 시설 대대적 교체·보수

온금배수지 증설·몽탄정수장 보강 등 맑은 물 공급 박차

목포시가 맑은 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대대적인 시설 교체·보수 공사에 들어간다.

3일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이하 사업단)에 따르면 온금배수지 시설 증설을 비롯해 몽탄정수장 시설물 보강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 북항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 상동 초기 우수 처리시설 설치, 백련 배수펌프장 신설 등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사업단은 우선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온금 배수지 증설에 나선다. 현재 온금 배수지의 용량은 총 300㎥로 기존 배수지 옆에 40 t 의 물탱크를 추가로 설치해 유달산 마당바위 부근 승강장과 휴게시설 등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목포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몽탄정수장의 노후 시설물 보강과 개보수 사업도 진행된다.

몽탄정수장은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해 각종 시설들이 노후화돼 시설물 보강과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설물 보강 9700만원과 시설물 개보수 1억5300만원 등 모두 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단은 장기간 사용으로 응집지 벽체 콘크리트 부식이 심화돼 방수·방식 공사와 함께 착수장 유입유량계를 설치하고 여과지 전동 구동장치와 표면세척기 노즐도 교체키로 했다.

특히 옥암·남악 신도시 인구유입 증가로 배출되는 하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총 265억원(목포시 116억, 전남개발공사 149억)이 투입돼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처리용량이 기존 1일 1만2000㎥에서 2만2000㎥으로 늘어난다.

또 북항 하수종말처리장의 질소·인 등을 처리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부합하고 공공수역 수질예방을 위한 고도처리 설치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 106억원이 투입돼 1일 3만5000㎥을 처리하게 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시작돼 현재 공정률은 92%로 조만간 시험가동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목포의 대표적인 상습 침수지역인 상동 버스터미널 앞 침수 예방을 위한 상동 초기 우수시설 설치사업도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목포시가 시민들의 식수 공급원인 몽탄정수장이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해 2억5000만원을 들여 시설 개보수 작업에 나선다. 몽탄정수장 전경. 〈목포시 제공〉

사업비 156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1만㎥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등이 들어서며, 오는 10월 사업이 완료되면 기습 폭우로 인한 버스터미널 인근 저지대의 침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용해 1·2 택지개발지구와 대양산단 일원의 원활한 우수처리를 위한 백련배수 펌프장 신설공사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펌프 5대가 설치된 이 펌프장은 분당 2115㎥를 처리할 수 있으며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목포시 상하수도 행정과 관계자는 "이들 사업들이 올 연말 모두 마무리되면 맑은 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는 물론 상하수도 관련 민원들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수 예방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고용위기지원 23개 동에 전담창구 개설

시, 후속대책 마련 분주

목포시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관련, 많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목포시는 3일 시 홈페이지에 정부 지원안내 배너를 게시하고 조만간 지역 23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직원이 배치된 안내창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앞으로 근로자는 훈련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주도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홍보해 신청을 유도하겠다"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에 참여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은 지난 1일 목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위기지역 설명회를 가졌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교육청, 초등 신규교사 멘토링제 결연식

지난 28일 지역 초등 신규교사 38명과 멘토교사 9명이 함께하는 멘토링제 결연식에서 신규교사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목포교육지원청 제공〉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선미)은 지난 28일 지역 초등 신규교사 38명과 멘토교사 9명이 함께하는 멘토링제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신규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2018 멘토링제 운영의 첫 출발로 이날 자리한 신규교사와 멘토 교사는 멘토링제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서로 낭독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등을 밝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목포교육지원청은 "이번 위촉된 멘토 교사들은 목포 지역 학교에 근무하며 열정을 다하는 교사로 현장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신규교사 '챙김'을 위한 직무연수 15시간(1학점) 과정에 강사로도 함께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연식에 참석한 신규교사들은 "4월에 첫 발령을 받은 이후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목포에서 근무하는 선배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현장으로 돌아가 배운 것을 교실 안에서 꼭 실천해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목포경찰, 여성범죄 강력 대응

8월까지 100일동안 집중단속

목포경찰서(서장 최인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들어간다.

목포경찰은 최근 여성에 대한 악성범죄가 늘어 여성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피해자보호를 위한 배려와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따라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동안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여성악성범죄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등이다.

목포경찰은 해당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수사과정상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각 기능별 추진회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여성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민관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지자체와도 협력해 공중화장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도 펼칠 계획이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